“생명나눔 가치 트로트로 알릴게요”



생명나눔실천본부 홍보대사 가수 배아현은 “앞으로 생명나눔에 큰 힘이 되는 가수가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사진=박재완 기자

생명나눔실천본부 · 현대불교신문 공동기획
‘생명나눔 희망선물’
⑧ 홍보대사 트로트 가수 배아현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리틀 주현미’.

트로트 가수 배아현을 수식하는 말이다. 고등학교 재학 시절, 히든싱어 시즌 2에 출연한 배아현은 아쉽게도 3라운드에서 탈락했다. 하지만 뛰어난 가창력을 눈여겨 본 가수 주현미가 “성인이 되면 제자로 받아주겠다”고 약속해 화제를 모으면서 ‘리틀 주현미’로 불리게 됐다.

2015년 한 음악제에서 대상을 받으며 ‘24시’로 정식 데뷔한 배아현은 나이답지 않은 뛰어난 노래 실력과 원숙한 표현력으로 주목을 받았다. 이후 ‘배 띄워라’ ‘선비 좋아 마세요’ 등을 히트시키며 트로트 가수로 입지를 굳혔다.

‘리틀 주현미’에 이어 최근에는 수식어가 하나 더 붙었다. 바로 생명나눔실천본부 홍보대사다.

배아현은 올해 4월 1일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으로부터 위촉장을 받고 가수 신성과 함께 홍보대사가 됐다. 위촉식에서 배아현은 “노래 실력을 열심히 갈고닦아 좋은 노래를 들려드리는 게 제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이라며 “재능을 잘 활용해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나눔의 의미와 가치를 알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당차게 포부를 밝혔다.

배아현은 생명나눔 이사장 일면 스님이 회주로 주석하는 남양주 불암사를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다닌 말 그대로 ‘찐불자’다. 불암사 신도인 신심 깊은 어머니의 영향으로 어릴 때는 대웅전 앞마당을 놀이터 삼아 뛰어놀았다.



배아현은 올해 4월 1일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리틀 주현미’ 불리며 가수데뷔
불암사 마당서 뛰놀던 ‘찐불자’
팬클럽 자발적 희망등록 눈길
“봉사 등 선한 행보 이어가겠다”



자발적으로 장기기증 희망등록한 팬클럽회원들.

“부처님오신날 등 각종 행사가 있는 날이면 마당에서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홍보하는 부스를 종종 봐왔어요. 그래서 홍보대사 제안을 받았을 때 너무나 영광스러웠어요. 각종 행사뿐 아니라 개인적인 활동에서도 생명나눔을 언급하고 홍보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도 이 때문이죠.”

실제 배아현은 팬클럽과 정기적으로 함께하는 실시간 미팅에서 항상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잊지 않고 알린다. 그의 이런 적극적인 홍보로 인해 일부 팬클럽 회원들은 자발적으로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하며 선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부터 팬클럽에 가입해 2년째 활동하고 있다는 박진혁 씨(44세, 법무사)는 팬클럽 회원 중 가장 먼저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했다. 박진혁 씨는 “장기기증에 대해 막연함이 있었는데, 응원하는 가수가 홍보대사가 됐으니 함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마음 맞는 몇몇 팬들과도 함께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홍보하고 봉사활동도 추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배아현 가수가 보여주는 선한 마음을 본받아 팬클럽도 다양한 생명나눔 활동에 적극 동참, 선한 영향력을 보이는 팬클럽이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생명나눔 홍보대사 위촉 후 팬들의 응원이 더해지면서 배아현은 더욱 바빠졌다. 마침 코로나 여파로 주춤했던 문화행사가 조금씩 활기를 되찾으면서 최근에는 전국 곳곳 사찰에서 희망을 노래하는 산사 음악축제 무대에 자주 오르고 있다.

“공연 전 부처님께 삼배하고 노래를 부르면 기분 탓일지 모르지만 관객들의 반응도 더 좋은 느낌이에요. 공기 좋은 사찰에서 목청껏 노래를 부르고 스트레스도 해소하죠. 무대를 내려오기 전 생명나눔 홍보대사로서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대한 안내를 하는 것도 잊지 않는답니다.”

생명나눔실천본부 홍보대사 이후 불연이 더 견고해진 걸까. 6월에는 템플스테이 20주년 홍보대사로 위촉되면서 얼마 전 20대들과 함께하는 직지사 템플스테이에도 동참했다.

배아현은 “좀 더 유명 가수였다면 존재 자체만으로도 생명나눔 홍보가 될 텐데 그렇지 못해 미안하고 아쉽다”면서 “앞으로도 열심히 활동해 생명나눔에 큰 힘이 되는 가수가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생명나눔 확산 우리가 책임진다”

생명나눔 알리는 홍보대사들

2001년 배우 장동건 첫 위촉
연예인 · 스포츠스타 등 51명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 이하 생명나눔)는 장기기증 희망등록 활성화와 생명나눔운동 확산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꾸준히 영향력 있는 명사나 연예인, 스포츠 스타, 스님 등을 홍보대사로 위촉해왔다.

생명나눔이 홍보대사 위촉을 본격 추진한 것은 2001년. 첫 홍보대사는 불자 연예인으로 잘 알려진 배우 장동건 씨가 맡았다. 장동건 씨 홍보대사 위촉은 이른바 ‘장동건 효과’를 거두며 홍보대사 특수를 톡톡히 누렸다. 장동건 씨가 각막기증을 서약하자 당시 월 1000건 안팎이었던 장기기증 동참이 이후 2000건을 넘어서며 대폭 증가했다. 매달 꾸준히 후원금을 전달했던 장동건 씨가 2004년과 2006에 후원금 1000~5000만 원을 기부하자 소식을 접한 팬들도 동참, 온라인 모금을 벌였고 이를 생명나눔에 전달하며 선한 영향력을 펼치기도 했다.

눈에 띄는 홍보 성과를 체감한 생명나눔은 이후 탤런트 전광렬 씨, 야구선수 홍성흔 씨, 방송인 김병조 씨, 국악인 송소희 씨 등 홍보대사 위촉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생명나눔 홍보대사하면 ‘호랑나비’ 가수 김흥국 씨를 빼놓을 수 없다. 독실한 불자인 김흥국 씨는 바쁜 스케줄에도 각종 행사에 성심성의껏 임한다. 단순히 ‘얼굴마담’에 그치지 않고 불우이웃돕기 등에 동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속사포 래퍼’ 아웃사이더도 활발한 활동으로 생명나눔 확산에 크게 기여했다. 아웃사이더는 2012년 생명나눔 홍보대사로 위촉되며 뇌사시 장기기증도 약속해 화제를 모았다. 아웃사이더는 생명나눔이 매년 동국대 일산병원에서 개최하는 한다솜 음악회에 출연, 환자와 그 가족들을 위로하고 고귀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불철주야 힘쓰는 의료진을 격려하는 등 홍보대사로서 다양한 역할에 최선을 다한다.

탤런트 김혜옥 · 김용림 씨도 장기기증 거리캠페인 등 주요행사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있다. 이들은 동료를 홍보대사로 추천하기도 하며 연예계에 생명나눔 문화를 확산하는 데도 앞장서고 있다. 생명나눔실천본부가 불교계 넘어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갖춘 장기기증운동 단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데는 홍보대사의 역할도 한 몫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홍보대사들의 활발한 활동에 생명나눔 임직원들의 노력이 더해지면서 시너지 효과도 크다.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지난해 조혈모세포 기증희망자 모집에서 목표치 100%를 달성하는 등 생명나눔은 괄목할 성장을 거뒀다. 올해도 생명나눔은 조혈모세포 모집 목표 2300명, 장기기증 희망등록 3000명 달성을 목표로 트로트 가수 배아현 씨와 신성 씨를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캠페인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2022년 8월 현재 생명나눔 홍보대사는 총 51명. 스님을 비롯해 가수, 스포츠 스타, 방송인, 스님 등 홍보대사들의 면면도 다양하다.

이사장 일면 스님은 “홍보대사 위촉은 생명나눔실천본부 이미지 제고와 장기기증 희망등록 확산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훌륭한 홍보대사들과 함께 다양한 활동을 펼쳐 우리 사회 곳곳에 생명나눔운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은호 기자

생명나눔실천본부 홍보대사

▶ 음악 | 김흥국, 해피체어, 박상민, 한혜진, 송소희, 주병선, 타히티, 아웃사이더, 김정연, 팝핀현준, 박애리, 웅산, 진보라, 정수라, 한영, 박일남, 양하영, 장미화, 써니힐, 김수빈, 권미희, 배아현, 신성

▶ 방송 · 영화 | 전광렬, 장동건, 이세은, 김병조, 김혜옥, 송선미, 문소리, 설수현, 이익선, 양상문, 남일우, 김용림, 이창재, 엄용수, 정준호, 김하영, 슈퍼탤런트

▶ 스포츠 | 홍성흔, 이은경, 윤석민, 이광은

▶ 종교 · 의학 | 지민 스님, 마가 스님, 정목 스님, 월호 스님, 보현 스님, 이윤수, 유종균

(2022년 8월 현재 총 51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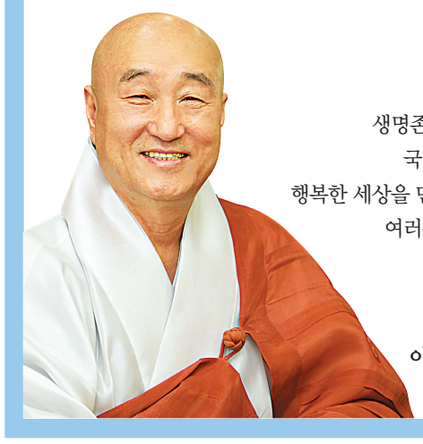


참여대상
청소년 및 참가를 원하는 국민 모두

프로그램
09:00~10:30 접수 / 부스체험 / 개회식 / 걷기 선포식
10:30~12:00 걷기명상
12:00~13:00 문화공연 및 경품추첨
(노트북, 로봇청소기, 애플워치 등)

문의 02-720-7720

주최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본부



걷기명상을 통해
생명존중문화가 확산되어
국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 황일면 합장

제13회
생명나눔 걷기명상

일시 : 2022. 9. 3(토) 09:00-13:00
장소 : 동국대학교 만해광장

